

이후 그는 '스페이스엑스', '테슬라 모터스' ^{Tesla Motors} (전기 자동차 회사—오펜), '솔라시티' ^{SolarCity} (태양광 발전 회사—오펜)를 설립한다. 이처럼 출중한 크리에이티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머스크 같은 사람이 기회를 연신 붙잡는 비결은 무엇일까?

물론 인맥, 전문성, 재능,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획기적인 발견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요소를 빠짐없이 갖추고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별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한다. 혹시 그 비결에 남다른 생각과 시각이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쩌면 머스크 같은 이들이 특유의 감수성과 호기심으로 사람들의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를 끄집어내는 것은 아닐까?

이 장에서 우리는 크리에이티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빈틈을 찾아서 메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크리에이티브들 중에서 내가 '태양새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통하는 해법을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 그것도 보통은 기존의 해법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살짝 변형해서 적용한다. '건축가형'은 공백을 발견하고 거기에 빠진 것을 채운다. 다시 말해 문제를 알아보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안해서 그간 방치돼 있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통합자형'은 기존의 개념들을 한데 아울러 전혀 다른 혼합물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살면서 축적된 경험 탓에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하나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크리에이티브들은 이 세 가지 법칙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발상의 채집기들

발명가 딘 카멘 ^{Dean Kamen} 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떤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왔는지 개의치 말고 전혀 다른 업계로 눈을 돌려 혹시 지금 이 문제에 적용하면 해법이 될 만한 기술이 있는지 찾아보자.”

카멘은 세그웨이 ^{Segway} PT 주행기, 오토시린지 ^{Autosyringe} 약물주입펌프, 아이봇 ^{iBOT} 전지형 ^{全地形} 휠체어 등을 개발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찾은 해법을 찾아서 그냥 살짝 바꿔봅시다.” 카멘은 짐짓 쓴웃음을 지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덧붙였다. “그러면 어쩌다 한 번은 통해요.”

“나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찾은 해법을 찾아서 살짝 바꿔봅니다.”

- 딘 카멘

카멘은 사실 미치광이 과학자의 삶이 있는 표본이다. 그는 뉴햄프셔 주 베드퍼드

드에 있는 널찍한 육각형 집에 사는데 그곳은 원래 헨리 포드 소유였던 대형 증기기관차를 비롯한 각종 별난 물건들로 가득하다. 카멘

은 날마다 자기용 헬기를 끌고 일터로 간다. 태양새형 인간인 그는 이 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심장 스텐트(혈관의 협착을 방지하는 철망—옮긴이)를 발명했다. 기존 스텐트가 혈관 안에서 찌그러져 난 감했던 백스터 헬스케어^{Baxter Healthcare} 측에서 그에게 더 튼튼한 스텐트를 개발해달라고 의뢰한 것이 계기였다. 카멘은 어마어마한 압력을 버텨내는 헬기 날개의 기능과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기존의 것보다 우수한 스텐트를 만들어냈다.

카멘은 다른 분야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해법을 찾아서 그 용도를 바꾼다. 세그웨이 PT를 설계할 때 그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이용하는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차용해서 제품이 쓰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했다. 아이봇 휠체어는 위아래로 동글게 원을 그리며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두 열의 바퀴를 활용해 탑승자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최대 180센티미터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가 만든 루크 암^{Luke Arm} 의수(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이름을 따)는 착용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동작이 거의 없다. 이 장치에는 온도와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열네 개나 달려 있고 착용자가 열쇠를 이용해 자물쇠를 딸 수도 있으며 컵을 쥌 수도 있다.

카멘의 생애 최고 발명은 퍼스트-FIRST, For Inspiration and Recogn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아닐까 싶다. 퍼스트는 스포츠의 작전 설명집을 차용해 수학과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 단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과 과학을 그냥 ‘공을 킵고 던진다’의 수준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스포츠로 만

들어보면 어떨까?” 즉석에서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의 특성에 착안한 그는 학생들이 팀을 짜서 표준 부품 세트로 로봇을 제작해 대결하는 6주간의 과학·기술 토너먼트를 마련했다. “정말 대학교 대항전을 펼칠 만큼 치열합니다.” 카멘은 웃으며 덧붙였다. “또 다른 좋은 점은 키가 210센티미터나 되고 몸무게가 130킬로그램이나 나는 남자아이와 조그만 여자아이가 한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거죠.” 2014년에는 40만 명이 넘는 학생이 퍼스트 대회에 참가했다.

그렇다면 태양새형 크리에이티브는 어떤 사람인가?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것을 다른 분야로 옮겨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태양새형은 기존의 개념을 변형해 다른 지역, 다른 산업에 이식하고 낯은 아이디어를 쇄신한다.

태양새는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작은 새를 말한다. 별새처럼 태양새도 꽃의 꿀을 주로 먹고 산다. 그래서 이 봉오리 저 봉오리로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긴다.

태양새형 크리에이티브가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발상들을 채집한다. 그래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주 강력한 발견 기법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다. 태양새형은 이곳의 해법을 옮겨서 저곳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는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바’라는 개념을 빌려왔다. 그렇지만 그는 영민하고